



◇법흥사 적멸보궁은 뒷산 어딘가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봉안되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뒷산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온 산이 다 부처님의 몸”

가람의 장면들

31

강 원도 영월군, 사자산 법흥사에 는 적멸보궁이라는 이름의 법당이 있다. 정면 3칸의 자그마한 규모이며 외관상으로는 특이한 점이 없는 평범한 건물이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면, 불단 위에 응당 계사야 할 불상이 없이 바깥으로 향만 둘러앉아 이런 류의 법당구조는 통도사 대웅전에 서도 볼 수 있었다. 통도사 대웅전에 불상이 없는 이유는 창 밖으로 보이는 사리탑에 석가세존의 진신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상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흥사 적멸보궁에서 보이는 것이라면 불상 대신 모셔진 것이다.

석가세존께서 열반하신 후시나기라는 당시 마투라 죽들이 지배하던 땅이었다. 대대적인 대바식을 끝내고 나니, 여덟 달에 해당하는 세존의 진골, 진신 사리를 수습할 수 있었다. 소문을 들은 주변의 일곱 나라 왕들이 물려와서 사리를 나누어줄 것을 요청해 세존의 사리는 여덟 등분 되어 여덟 나라의 종교지인, 일반 민중들은 구제적인 신앙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자성 구도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지식인에게만 가능하지, 지적 수준이 낮은 민중들에게는 난해하고 불가능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세존의 배와 정기가 화한 진신사리아말로 최고의

법흥사 적멸보궁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신앙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불교 초기에 일어났던 사리 전쟁은 자기 나라를 불교국으로 포교하려는 왕들의 전략적 목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유명한 아쇼카 왕은 후대에 일곱 나라의 탐(스투파)에서 사리를 꺼내어 그가 세운 8만개의 탑에 골고루 나누었고, 사리신앙은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에 사리신앙을 전파한 이는 자장율사다. 중국에 유학한 자장은 중남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세존의 외발과 진신사리 100과를 얻어 귀국했다. 삼국유

진신사리 뒷산에 묻어

돌·풀 한포기도 곧 부처

사이에 의하면, 그는 이 사리를 황룡사 9층 탑과 출신 태화사, 그리고 통도사 금강계단에 나누어 봉안했다. 현존하는 곳은 통도사 금강계단 뿐이다. 그러나 다른 기록과 구전에 의하면, 자장은 여러 곳에 그가 가지고 온 진신사리를 나누어 봉안했다고 전한다. 오대산의 중대암,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사자산 법흥사가 바로 그곳이라 한다. 또한 태백산 정암사는 입진 왜란 때 사명대사가 통도사 사리를 나누어 봉안한 곳이다. 이들 5개소에는 적멸보궁형의 법당들이 세워졌고, 이를 5대 적멸보궁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이외에도 대구 달성 용연사에도 적멸보궁이 있고,

사천 다솔사도 최근에 보궁을 만드는 등, 진신 사리와 보궁에 대한 신앙은 아직도 식을 줄 모른다.

세존의 말씀은 교(敎)가 되었고, 세존의 마음은 선(禪)이 되었다. 교는 경전을 통해 기록되어 법보(法寶)가 되었으며, 선은 스님들을 통해 전해져서 승보(僧寶)가 되었다. 세존의 몸이요, 정신의 현현물인 진신사리는 불보(佛寶)가 되어, 삼보를 구성한다. 그 귀한 보물이나, 진신사리에 대한 열망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법흥사 적멸보궁은 뒷산 어딘가에 사리가 봉안되었다고 전하기 때문에, 뒷산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떤 인공적인 불탑보다도, 불상보다도 자연물은 위대하다. 세월이 지난다고 허물어질라 하고, 외적의 침입에도 도난당하거나 불타버릴 염려도 없다.

자장이 가져왔다는 불사리의 진신 여부에 대해 의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세존이 열반한 뒤 1000여년이 지난 그 때에, 그리고 이러한 중국 땅에서 어떻게 100과나 되는 사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어떻고, 사실이면 어떤가? 불보란 석가세존의 존재 자체이지, 배나 장마루 같은 사리가 아니지 않은가? 물질인 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장이 전해준 불보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다.

사리는 단지 상징일 뿐이다. 법흥사 적멸보궁 뒷산은 사리신앙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 거대한 산 속에 몇 톨의 진신사리가 흩어져 묻혀있다. 아무리 험난 장마를 동반한다 해도, 이 산 속에서 사리를 찾는다는 것은 망망대해에 던져진 돌멩이를 찾는 것만큼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 그러나 아무런 장비 없이도 우리는 쉽게 사리를 발견할 수 있다. 온 산이 부처의 몸이기 때문에, 뒷산에 널린 풀멍이 하나는 부처의 배요, 풀포기 하나는 부처의 모발이 된다. 법흥사 적멸보궁이 전하고 있는 뜻은 바로 이것이다. 그 흩날린 사리를 왜 찾으려 하는가? 온 산이, 온 세상이 부처인데,

“민족문화·생태계의 寶庫 지리산 댐건설 중지하라”

전국 생태기행지도자 실상사 워크숍

최근 들어 환경·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명 '생태 기행'이 유행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위기 의식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생태기행 전문가들은 생태기행을 '시민들이 자연생태계 탐방을 통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문제 해법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규모의 교육여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생태기행은 흔히 대자연에 교실로 하는 열린 교육이며, 교실 밖의 교육으로 불린다. 자연을 즐기는 것보다 배우고 보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자작이며 비판적인 환경운동의 한 방편이 되고 있다. 생태기행은 동·식물 관찰을 통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체험학습과 심신수련의 방편이자 자연과 산업, 보전과 개발의 심각한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모험인 것이다.

지난 16~17일 1박2일간 남원 실상



사 및 지리산 일대에서 두레생태기행(회장 김재일)과 실상사(주지 도법)가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후원으로 개최한 '생태적 시각으로 지리산 돌아보기'란 주제의 제2회 전국 생태기행 지도자 워크숍은 그 동안의 생태기행 사례와 정보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생태기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20명 지리산 탐사 '생명존중' 재인식 야생화·곤충 등 분야별 탐사지침 발표



◇지리산 댐 예정지의 한 곳인 함양군 문정면 용유담 계곡에서 탐사활동 중인 생태기행 지도자들.

- 참가자들은 자연을 대할 때 경의심을 가져야 한다.
- 생물 분류학적 호기심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 함부로 동물을 방해하거나 식물의 씨앗을 퍼뜨려서는 안된다.
- 곤충이나 물고기를 손으로 자주 만지면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유념한다.
- 귀와 등·식물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 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거나 미워해서는 안된다.
- 사할 주변에서는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를 함부로 묻어서 호양을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동식물에 위험을 가하는 놀이를 해서는 안된다.
- 어떤 종은 재질하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사냥은 성지이므로 포충망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 새들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망원경을 사용하여 탐조한다.
- 산수유보조자야의 탐사활동은 삼가야 한다.
- 풀을 씹기 때는 미생물이나 오일물질이 유입되므로 신발의 흙을 털고 들어가야 한다.
- 함부로 냇가의 풀을 뒤집어 놓아서는 안된다.
- 도토리·대역·도라지·나물·주웠을 등 먹거리를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에서 모인 120명의 생태기행 지도자들은 토론과 지리산 탐사활동을 벌이고, '생물 분류학적 호기심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등 야생화·나무·술·물고기·곤충·조류·해양 등 분야별로 생태기행 '탐사지침'(표)을 마련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지리산 댐 건설 예정지를 찾아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자연생태·역사문화·지역정서적 측면에서 댐 건설 백지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생태계와 문화유산의 보고를 파괴하는 지리산 댐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와 수원공사에서 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종교 등 지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총체적 조사작업을 거치지 않고, 정치논리와 단기적인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방안으로 생태기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들간 실상사와 댐 건설 예정지인 함양군 문정면 일대에서 7개 분야별로 탐사활동을 벌인 참가자들은 '지리산의 넓고(약 1억3000만평) 울창한 숲에는 연간 500만명의 탐방객이 몰리지만 인간보다는 야생 동·식물의 땅'임을 재확인했다. 탐사팀은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울벚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수달·새매·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과 나무발발이·쇠꼬치레도롱뇽 등 세계적인 희귀동물들을 비롯 식물 824종·포유류 39종·조류 89종·양서류 9종·파충류 11종·어류 21종·곤충류 1813종이 서식하는 지리산 기슭에 대규모 댐을 만들 경우 중산리 계곡과 달궁계곡 등 수려한 계곡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물론 안개 일출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이 상이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 될 것이라 분석했다.

두레생태기행 김재일 회장은 "지리산은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유수의 강을 거느리면서 한반도 남부의 비옥한 곡창지대를 연출해 내고 있는 민족의 젖주머니"이라며 "민족문화·생태계의 보고요, 우리 역사의 산 현장을 댐으로 수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재경 기자 (jgkm@buddhapia.com)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람” 을 메세요



▲B-1001 ₩40,000 ▲B-1002 ₩35,000 ▲B-1003(大) ₩35,000 ▲B-1004(大) ₩32,000

※ 본 마방 및 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시 ☎(054)636-6546/632-6546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협 : 061-17-001230
우체국 : 013805-01-001737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	경지불교사	02)739-3032	경성불사	02)735-3543	대성불교사	02)732-7375
	제일불교사	02)73000918	대북전	02)737-0980	이화불교사	02)720-1700
경기	화계사	02)697-7517	도선사	02)966-2278	구룡사	02)576-7766
	봉암사	03)258-4127	포교동	03)283-1055	양명불교사	03)771-4747
부산	구리만물	02)1862-7554				
광주	부다가이	051)885-4383	고려불교예술원	051)807-8842	산사불	051)508-6300
대구	관성성지	062)389-1937	태평불교역사원	062)224-6996		
대전	쌍영불교사	053)426-4097	동화불교사	053)255-0784	봉은불교사	053)424-9462
	보문불교서원	042)257-0161	용해불교미술원	042)274-3727	대구승복사	042)254-6772
강원	원주금강불교사	033)743-7442	강릉불교미술원	033)642-8980	공민사원불교사	033)434-8446
	춘천동명불교사	033)254-984	적성산구룡사	033)732-1218		
	전주동명불교사	056)743-4855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마산교동정선사	055)256-6078
충남	갈매동명불교사	055)525-0790	충청남도불교진흥원	055)295-8911		
전북	한탄동명불교사	041)551-4765	동양불교사	041)886-4564	백제불교사	041)855-5021
	이리유기	063)855-3883	상운각	063)274-8839	거북불교사	063)532-2998
남원	남원불교사	063)625-0234				

법회중 휴대폰 소음, 이제는 사라진다!



공공장소 전파차단기 레디오캡슐 SRC-300

법회 중 휴대전화 소음에 짜증 나신적이 있으니까?

법회 중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소리, "레디오 캡슐"이 반경 40M 내의 모든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여 정숙한 부처님의 도량인 법당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레디오 캡슐"이 정숙함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품질보증마크인 Q마크를 획득,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법당의 정숙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상담 및 구입문의 02) 408-2313
주식회사 자사 (JASACORPORATION)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55-2

우체국 계좌번호 014241-02-118536
예금주: 한 경구